

체중·이용시간 기록... 반려묘 건강 챙겨줄 'IoT 화장실'

도전! 스타트업UP

고양이 화장실 '라비봇' 만든 노태구 골골송작곡가 대표

1세대 전면수정 2세대 3월 출시 내부공간 30% 확대, 편의 높여 모래 5L정량 맞춰 보충문제 해결



골골송작곡가의 고양이 자동화장실 라비봇 2세대. /골골송작곡가

노태구 골골송작곡가 대표에게 2020년은 중요한 한 해다. 오는 3월, 1년 6개월만에 두 번째 고양이 자동화장실 제품인 '라비봇' 2세대를 출시하기 때문이다. 라비봇 2는 지난 2018년 와디즈 펀딩으로 판매했던 라비봇 1세대의 문제를 전면 수정해 내놓은 제품이다. 노태구 대표는 "외관 빼고는 안에 있는 센서 하나하나까지 전부 바꿨다"고 설명했다.

라비봇은 IoT 기술로 고양이 배설물을 청소하는 자동화장실이다. 화장실 내부에 IoT 센서를 장착해 앱으로 화장실 내부 상태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반려묘의 화장실 이용 횟수·시간·체중 등 데이터도 기록된다. 이 배변 활동 데이터는 반려묘의 건강 상태나

이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동물 병원 진료 시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게 도와준다.

라비봇 2세대의 가장 큰 변화는 내부 크기다. 1세대와 외관은 같지만, 내부 공간을 30% 넓혔다. 이를 통해 좁은 내부에서 불편하게 볼일을 보던 반려묘의 편의를 높였다. 문제가 가장 많았던 고양이 화장실 모래 보충 문제도 해결했다. 화장실 내부에서 모래를 교환하는 구조도 바꿔 모래 과다 보충이나 과소 보충을 막았다. 예전에는 분리기를 밀어서 모래통에 있는 문을 열면서 모래

를 교환하는 구조였는데, 2세대는 내부가 돌아가면서 구조를 변화해 모래를 교환하기 때문에 5L 정량을 맞출 수 있다. 한마리 기준으로 최대 21일간 사용할 수 있다. 21일 후에는 모래 전체 같이만 해 주면 된다. 각기 다른 모래 입자 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라비봇 전용 모래도 구비했다. 라비봇 전용 모래는 내부에 늘어붙지 않아 날림도 적다. 황화수소나 암모니아 냄새를 감소하는 젤 형태의 탈취제도 장착했다.

자동화장실 부품과 제조사도 바꿨다. 와디즈 펀딩 직후 손을 잡게 된 테크 액셀러레이터 퓨처플레이의 조언으로 1차 벤더를 소개받아 OEM 위탁 생산하게 됐다. 라비봇 1세대까지는 자체적으로 부품을 구매해 조립했다. 노태구 대표는 "당시 중국제 부품을 사용했는데, 여기서 문제가 많이 생겨 전부 국산 제품으로 교체했다"고 설명했다. 스타트업 보육기관인 삼성전자의 C랩 아웃 사이더로 선정되면서 삼성전자의 조언을 얻어 품질 기준도 대기업 수준으로 맞췄다. 라비봇과 연동 문제가 있던 앱도 개선했다. 노태구의 목표는 불량률 0%다.

노태구 대표는 라비봇 2세대 개선점

은 모두 고객의 피드백에서 나왔다고 설명했다. 1세대 펀딩 판매 후 우후죽순 발생했던 불량품을 수리하기 위해 새벽 6시부터 자정까지 고객을 하나하나 찾아다녔다. 1세대 구매 고객의 집을 방문해 AS를 진행하고 문제점을 확인했다. 노태구는 "라비봇이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는지, 라비봇이 고양이 집사(반려묘 주인)의 라이프 스타일 안에 어떻게 녹아있는지를 볼 수 있어 큰 자산이 됐다"고 말했다. 노태구는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성스럽게 피드백을 준 고객들을 위해 보상판매도 진행할 계획이다.

라비봇 2세대는 이미 수출도 예정돼 있다. 북미에서 펀딩을 진행했다. 노태구 대표는 "콤팩트한 외관에 내부를 키워서 특히 미주 지역에서 인기가 많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에 시작한 라비봇 2세대 수출은 오는 4월 말 배송이 시작되면 배를 타고 가기 때문에 6월쯤 고객의 집에 도착할 예정이다. 노태구는 "3분기 넘게 기다려야 함에도 펀딩이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덧붙였다.

노태구 대표의 목표는 고

양이 건강을 관리하는 다양한 IoT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다. 반려묘의 건강 이상 신호를 빨리 발견해 급사를 막기 위해서다. 다음에 출시될 제품은 고양이 활동량이나 건강 데이터를 추가로 수집할 수 있는 목걸이와 같은 장치를 개발하는 것이다. 과거 노태구가 키우던 고양이가 복막염으로 2주 만에 사망했던 아픈 경험을 다른 집사들은 겪지 않았으면 해서다.

/배한님 기자 ericbae1683@metroseoul.co.kr



노태구 골골송작곡가 대표. /골골송작곡가

반도체 등 '빅3' 中 250곳 집중육성

정부, 한국당 최대 130억원 지원 SoC·의약·V2X 등 총 11개 분야

정부가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분야에서 성장 잠재력을 갖춘 중소벤처기업 250곳을 집중 육성한다.

이들에게는 최대 12억원의 사업화 또는 연구개발(R&D) 자금을 포함해 1곳당 최대 100억원의 정책자금과 최대 30억원의 기술보증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부터 'BIG 3 분야'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기업 선정 접수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하는 분야는 ▲SoC·아날로그반도체·스마트센서·패키징·테스트 등 인프라(시스템반도체) ▲의약·의료

기기·디지털헬스케어 디바이스·바이오소재(바이오헬스) ▲자율주행센서·V2X·친환경차 배터리 등 총 11개 분야다.

다만 디지털헬스케어(SW), e-모빌리티빅데이터, 자율주행인포테인먼트 및 친환경차로의 전환에 따른 수요다변화와 업종전환 분야는 추후 경영 등 별도 평가를 거쳐 뽑을 계획이다.

기업선정을 위한 1차 평가는 기업의 재무구조, 기존 정부지원 실적, 지원 분야와의 부합성 등 적격성을 심사한다.

2배수를 추리는 2차 평가는 핵심기술 역량의 우수성, 혁신 기술개발 가능성, 연구개발역량 및 기술확보 계획 등 기업의 기술적 역량을 심사한다.

특히, 2차 평가에선 사용자 관점에서 최적화된 사용자인터페이스(UI)·사용자경험(UX) 평가를 내실화하고, 객관

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일반 국민도 심사에 참여하게 된다.

혁신성을 심사하는 3차 평가는 성장성, 비즈니스모델, 보유기술과 확보 가능 기술의 파급효과와 성공 시 사회공헌계획을 심사한다.

사회공헌계획 평가는 정부 지원에 따른 성공의 기준과 내용을 기업이 스스로 제시하고, 목표한 성공이 달성될 경우 기업의 사회 환류 계획을 자유롭게 작성하고 이를 평가에 반영하게 된다.

신청기간은 23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로 'e나라도움'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공고와 관련한 설명회는 오는 30일 서울 강남 테헤란로에 위치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bada@



벤처협회 김진형 상근부회장(오른쪽)이 한화생명 임성민 미래전략실장과 양측간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벤처협회

벤처기업協-한화생명, 벤처 활성화 협약

벤처기업협회는 한화생명과 '드림파크를 통한 스타트업 육성과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21일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한화생명 드림파크는 기존 한화생명 연수원을 리모델링한 곳으로 경기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해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벤처협회와 한

화생명은 우수인력 육성 및 벤처 생태계 정책개발 등을 목표로 각종 공동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한화생명은 벤처기업협회가 교육·행사 등을 개최할 경우 드림파크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벤처협회 회원사들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카페24 회원, 무신사서 상품판매 하세요"

G마켓·아마존 등 판매경로 연동

카페24를 이용하는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들이 온라인 패션 스토어 '무신사'에 손쉽게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카페24는 자사마켓 통합관리 서비스에 무신사 연동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무신사는 550만 회원 수 보유한 국내 최대 온라인 패션 스토어다. 디스이즈네버댓·비온드클로젯·오아이오아이 등 3500여 개 브랜드가 입점해 있다. 주요 소비층은 10대~20대다. 지난해 거래액은 9000억원 규모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카페24마켓통합관리'는 한 번의 클릭으로 손쉽게 자사 쇼핑몰과 국내·외 오픈마켓을 연동하는 서비스다. 운영 중인 각 마켓에 별도로 접속할 필요 없이 카페24 솔루션에서 상품 등록부터 주문 수집, 배송 관리까지 한번에 처리할 수 있다. 카페24 회원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연동으로 카페24를 이용하는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는 보다 많은 국내·외 외부 마켓에 물건을 동시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카페24는 무신사를 비롯해 G마켓·옥션·11번가·아마존·라쿤 등 국내·외 29곳의 판매경로 연동을 지원하고 있다. /배한님 기자

경기개성공단사업협동조합

취약계층에 설 물품 전달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설을 맞아 나눔을 실천했다.

경기개성공단사업협동조합은 '개성공단 기업인 취약계층 지원 물품 전달식'을 지난 21일 경기도청 평화부지사에서 가졌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설맞이 사랑나눔 행사는 개성공단 입주 중소기업인들이 이웃사랑을 통해 사랑 나눔 분위기를 확산하고 우리 경제를 이끌어가는 주역으로서 중소기업인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기부한 물품은 의류, 신발, 식품, 생활용품 등 기존 개성공단내 12개 기업이 제조한 것으로 약 4000만 원 어치에 달한다. /김승호 기자

깨끗한나라-GS리테일, 상품개발 맞손

깨끗한나라가 GS리테일과 손잡고 최신 고객 트렌드를 반영한 차별화 상품 개발에 나선다.

깨끗한나라는 GS리테일과 '차별화 상품 개발을 위한 상호 전략 제휴(MOU)'를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제휴를 통해 깨끗한나라는 GS리테일의 GS25, GS THE FRESH, 탈라블라 등 전국 1만4000여 개 오프라인 점포 및 온라인 채널을 활용해 ▲카테고리 별 상품 트렌드 공동연구 ▲카테고리 별 트렌드 반영 상품의 신속한 출시 ▲매출 활성화 위한 프로모션 진행 ▲매장 내 진열 공간 확대 ▲공동마케팅 및 나눔상품 개발 등 5가지 핵심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깨끗한나라 최현수 대표이사(오른쪽)가 GS리테일 김중수 MD 본부 본부장과 MOU를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깨끗한나라

이를 위해 깨끗한나라와 GS리테일은 별도 태스크포스(TF) 팀을 구성해 정기적인 미팅을 갖고 신상품 개발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